

매일 새로워지는 인턴 리크루터

김아영-HRCap

올 여름, 나의 이번 인턴 생활을 회상해 보면 중학교 시절 국어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란 말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름은 그 말 그대로 매일 매일 이전의 내 인식에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워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교훈을 준 곳은 바로, 코참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한국계 글로벌 헤드헌팅 회사인 에이치알캡(HRCap)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처음 접하게 된 '리크루터'는 매우 생소한 직업명이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달 간 리크루팅 인턴으로 일하면서 나는 리쿠루터가 기업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시킴으로써 한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으며 또한 한 개인을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도약하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HRCap은 뉴저지에 본사에 두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고급 인재와 성장 중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 중 가장 큰 검색 및 인사 컨설팅 회사로 명성을 알리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자격요건을 정리하여 여기에 적합한 후보자를 매칭시켜주며 더 나아가 온보딩 과정까지 케어함으로써 기업들의 채용 부담감, 개인의 생활안정까지 꾀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러한 HRCap은 현재 한국, 미국 전역을 포함하여 1000여개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커다란 회사이며, 보유한 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60만명이 넘는다. 또한 폭넓은 채용 범위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직종, 직급의 인재를 발굴하는 기업이다.

나는 NSPT 팀(National Search Practice Team)에 소속되어 총 세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0여곳의 회사들의 후보자들이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JD(Job Description), 즉 채용 공고를 제작하는 것이 나의 첫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 개인만 회사에 자신을 어필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자신들과 맞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회사를 어필하고 그 성장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어한다는 것에 신선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리크루터는 단순히 기업과 인재를 매칭시켜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인재가 서로 관심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부터 리크루터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이다.

얼핏 리크루터가 기업과 피채용인의 중간 연결의 '딜리버리'의 역할이 전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며 나 또한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인 작은 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위해 만들었던 '2022년 노동 시장 분석 및 법 규정' PPT를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하면서, 나는 리크루터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리크루터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모든 법 규정을 숙지해야함은 물론 누구보다 더 많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용 요청이 들어온 직업과 직종에 대해서 요구되는 자격증부터 어떤 커리어를 밟아야하는지까지 전부 파악함으로써 인재가 원하는 미래를 먼저 그려나아가 기업과 인재가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석하고 컨설팅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일하는 회사에 적합한 필요 인재가 합류되었을 때 더 큰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미래를 위한 연결고리가 리크루터이며 회사와 인재의 미래까지 케어해주는 것까지가 리크루터의 자질임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번 여름 인턴십을 통하여 HR 분야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리크루터로서 기업의 발전,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고민해주고 설계해주는 컨설턴트 역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매일 아침 핸드폰에 나를 찾는 후보자와 회사의 연락이 많이 쌓여있을수록 내가 리크루터로서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셨다는 Sean 이사님의 말씀에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리쿠르터의 책임감과 무거움을 인지하도록 깨닫게 해준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저 일은 편한게 최고라고만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한 영향력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나'를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근사한 자동차를 만들 때 걸치레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나사 하나까지 딱 맞는 부속품으로 만들어야 튼튼한 자동차가 되듯이, 기업의 전체 메커니즘에 적절한 인재를, 한 사람의 인생에 적절한 기회를 투입시켜주어 탄탄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리크루터의 진정한 역할임을 이젠 말할 수 있다. 이번 여름을 통해 매일 매일 새롭게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리쿠르터로서 경험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이러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 코참과 HRCap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다.